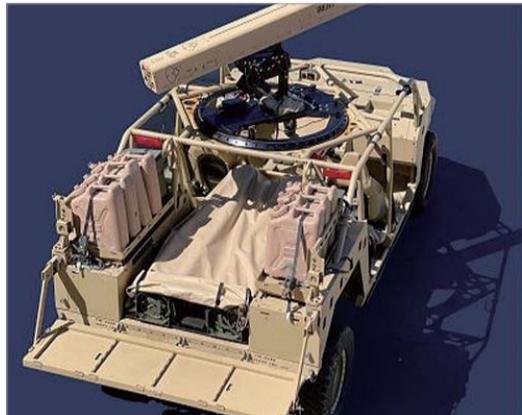


세계 각국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도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특수작전 요원들을 위한 70mm 로켓발사체계를 구입,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플렛처’라는 이름의 이 로켓은 전술차량에 탑재해 각종 임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주변국의 전력 증강에 맞춰 육·해·공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 잠수함을 진수했다. ‘타이게이’라는 이름의 신형 잠수함은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더 오래, 더 빠른 잠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본은 타이게이함의 진수로 22척의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항공·육상자위대가 사용할 차량탑재형 지대공미사일 체계 개발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만들어질 새 지대공미사일은 항공기지는 물론 정부청사,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방호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자체 개발한 대방사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차세대 공대지 대방사 미사일 루드람은 100km 밖 목표물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인도는 공군이 운용하는 각종 전투기에 루드람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70mm 로켓발사체계 도입 예정

기본 4발 장탄... 5km 이상 거리에서 100% 적중률

미 특수작전 요원들이 70mm 로켓을 운용할 전망이다. 미 특수작전사령부(USSOCOM)는 최근 아놀드 디펜스(Arnold Defense)가 개발한 지상전술차량용 70mm 로켓발사체계 플렛처(Fletcher)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플렛처는 USSOCOM은 물론 유럽 특수작전부대 등도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놀드 디펜스는 플렛처의 정확한 탑재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덕 윌러스 아놀드 디펜스 대표는 플렛처가 폴라리스의 MRZR, Dagor와 나비스타(Navistar)의 SOTV, NIMR의 Ajaban, 오쉬코쉬의 S-ATV 등 다양한 지상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최근 구입한 아놀드 디펜스의 지상전술차량용 70mm 로켓발사체계 플렛처(Fletcher).

출처=janes.com

플렛처는 기본 4발을 장탄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운용개념에 따라 플랫폼을 여러 개 탑재해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또 최근

진행된 발사시험에서는 5km 이상 거리에서 100% 적중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렛처는 BAE의 APKWS 등 모든 70mm 유도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아놀드 디펜스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진행된 미 해군과 BAE의 APKWS 시험 발사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아놀드 디펜스는 곧 탈레스의 70mm 로켓의 발사시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렛처의 USSOCOM 인도 시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윌러스 대표는 “최종 평가는 완료됐고, 곧 야전에서 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첫 번째 신형 디젤-전기식 잠수함 진수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고속 항해 장점

일본이 첫 신형 디젤-전기식 잠수함을 진수, 운용에 들어갔다. 이로써 일본은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완성했다.

‘큰 고래’를 뜻하는 타이게이(Taigei)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최근 고베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에서 진수됐다. 타이게이는 일본이 현재 보유한 소류급 잠수함의 후속 잠수함 가운데 선도함이다. 타이게이함은 디젤과 전기를 모두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식 공격 잠수함으로 길이는 84m다.

특히 타이게이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비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터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 마지막으로 건조된 소류급 잠수함 2척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정비 소요가 적고 납축전지에 비해 고속으로 더 오래 항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해상 시운전을 진행 중인 타이게이함은 2022년 해상자위대 소속으로 취역할 예정이다. 타이게이함이 운용되면 일본은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완료하게 된다. 확장된 잠수함 전력은 구



일본이 최근 진수한 신형 디젤-전기식 잠수함 타이게이함.

출처=defensenews.com

형 오야시오급 잠수함 9척, 소류급 잠수함 12척, 타이게이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 2척을 추가 획득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최근 타이게이급 잠수함 1척을 추가 조달하기 위해 6억541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 시험발사 추적·통신 시설 등 파괴 표적 초정밀 타격 성공

인도 방위연구소(DRDO)가 자국 공군의 수호아-30MKI 전투기를 이용, 자체 개발한 루드람(Rudram) 대방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장면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은 적 레이더 및 추적·통신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은 오디샤(Odisha)주 해안 앞바다에 있는 섬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했다”면서 “이제 인도는 적 레이더·통신기지 및 무선주파수 방출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장거리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는 이르면 내년 루드람 미사일이 운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루드람 미사일은 인도에서 개발한 이중 펄스, 고체추진 로켓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또 수동·능동 레이더 탐색기와 GPS 지원을 받는 관성항법체계도 갖추고 있다. 인도는 수호아-30MKI 전투기는 물론 다른 형태의 전투기에도 루드람 미사일을 활용, 원거리에서 적 방공체계를 제압하겠다는 구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루드람 미사일은 인도가 개발한 광대역 2D 수동식 탐색기를 활용, 100km 거리에서 레이더가 방출하는 신호를 사용해 표적을 구분할 수 있다. 표적을 최초 탐지·조준한 뒤에는 방사를 중지하는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GPS 지원 관성항법체계를 사용해 표적의 원래 위치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다.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

일본 방위성, 차량탑재형 지대공미사일(SAM) 개발 계획

항공·육상자위대 합동 추진 ‘비용 절감’

일본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와 육상자위대가 사용할 새로운 차량탑재 지대공미사일(SAM) 체계 개발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개발되는 지대공미사일이 현재 항공·육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93식 지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 획득·기술·군수청(ATLA)은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미사일 가운데 어떤 것을 개량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1식 지대공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 지대공미사일은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물론 저고도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항공기 방어를 물론 육상자위대의 정부청사, 발전소 등 주요 시설과 원거리 도서 지역 방호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ATLA 대변인은 새 지대공미사일·발사기 개발을 항공·육상자위대 합동사업으로 진행, 비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의 미사일 체계 설계 영상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발사기 2대, 항공자위대는 발사기 4대가 장비된 체계를 사용할 예정이다.

ATLA는 이와 함께 극초음속 활공무기



일본이 개발할 예정인 차량탑재형 지대공미사일 체계 구상도.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미사일(왼쪽)은 4개의 발사대를, 육상자위대가 사용할 미사일(오른쪽)은 2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출처=janes.com

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개발을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인접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하고 있다.